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물고기 물 속에서는 물 고마운 줄 몰라

#### 마음씨 타령 ③

이 말마디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본다 내가 쓰는 건 겁입니다. 마조대사가 이렇게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론을 다는데 있어서는 마조대사가 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신 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합니다.

아 여쭙 열반이 급합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편안하다든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해야, 그렇구나 할 건데 급함이나 했거든요. 이거하고 연결 시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좋은 일로 급할 때도 있고 나쁜 일로 급할 때도 있었어요. 급하다는 것은 나쁘다든지 좋은 일을 떠나서 급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열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급하다는 이 말마디부터 알아야 됩니다. 급하다 해도 좋고 늦다 해도 좋은데 말마디는 틀림없이 말마디거든요.

그 말마디는 이거 불가사의한 거라. 이거 쇠꽃에서 나온 거여.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성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마디가. 그러하면 말마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보리상입니다. 보리상, 보리는 깨달음은 각자예요. 보리상, 보리의 모습입니다. 실에 있어서, 좋은 말로 하나 나쁜 말로 하나 그것은 보리의 모습이거든요. 진리의 나뭇잎이거든요.

무슨 말을 했든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 무정물인 혀바닥을 굴려서, 혀바닥은 성품이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빗갈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생각하는 대로 혀바닥을 굴려서 말마디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한 자립입니다. 이 말마디가. 그러니까 말마디는 제일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은 진리의 나뭇잎이라 해도 좋습니다. 지도리의 나뭇잎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리 하면 가리(진리의 반대)가 있으니 까 상대성이라 말이지. 상대성을 떠나서 지도리라 해도 좋습니다. 상대성을 진리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 진리의 나뭇잎입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살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서로 싸우고 잘못 쓴다 뿐이지 실은 진리의 나뭇잎이거든요. 진리를 잘 못 쓴다 그 뿐이지 진리의 나뭇잎이거든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함이나 나쁜 말마

디 하나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인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나뭇잎으로 이 말마디가 하나 떨어지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대화하는데 있어서 시절이 다르다 말이지. 경우가 달라. 장소가 달라. 하기 때문에 더욱 말마디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급하다 해놔오니 보리상은 보리상이라. 말마디야 좋게 했든지 나쁘게 했든지 보리의 모습은 보리의 모습이라. 진리의 나뭇잎은 틀림없이 진리의 나뭇잎이라.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참 진리의 나뭇잎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고마운 줄을 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의 고마운 줄을 몰라. 그러나 말마디는 하나 진리의 나뭇잎이거든요. 진리의 나뭇잎, 다시 말하자면 보리 상이거든요. 보리의 모습, 보리의 모습은

“

우리는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의 고마움을 몰라

진리의 나뭇잎은 ‘열반묘심’

‘보리’ 모습은 자리에 얽매지 않아

화두참선 이치와 바로 똑같아

”

무엇이냐. 열반묘심... 보리가 자리를 곧 열반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하니 급하다. 마 대사의 혀바닥을 빌려서 똑 떨어졌어. 이거 진리의 나뭇잎이라 말이지. 보리의 모습이냐 말이지. 보리의 모습은 바로 그 자리가 열반자리거든요. 어떻게든 무슨 지견을 세워서 거기 얽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리상이다 보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딱히 자기 자리가 잡혀져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진리다 뭐이다 그런 생각이 급하다 할 때 어떤 것이 여기 갖추어져 있느냐. 평상시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잡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하

다는 생각 하나뿐이지 잡념은 하나도 안 없어져. 화두 가지고 참선하는 이치가 그 이치입니다.

이것이 뭘고 하면 그래도 잡념이 생겨. 잡념 생기더라도 거기 상관하지 말고 이것이 뭘고 하고 들어가면 말이지 일념이 돼버려요. 잡념이 저절로 죽어 나가. 급한 일이 딱 있어.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이 든.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이걸 어쩔고 저걸 어쩔고 하겠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잡념이 딱 하게 없어져 버려. 그런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 의미가 여기서 나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 급하든지 뭘이든지, 급하긴 급한 일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 일으키는 것이 한결같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급한 일 있으면 다른 일, 어쩔 땐 집안일도 생각 안 나죠? 급한 일 있으면 그것만 딱 생각해서 쫓아간단든지 급한 일 있을 때 그것만 자꾸 생각해. 그때 다른 잡념이 없어져 버려. 마조대사가 그리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리 생각해요. 마조 대사는 다른 의미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기서 나타납니다. 급하다. 화두를 가져. 화두를 딱 가지면 다른 생각이 나타나질 않아요. 꼭 급한 거나 한가지입니다. 무엇이고, 이것이 뭘고. 아무래도 내가 이걸 해야 되었는데 그래야 내가 생사를 초월하겠는데, 이것이 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급해. 급한 일이 있어. 아이길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다른 생각이 썩 없어져버려. 그러나 종이 물을 수밖에. 급하다 해놓았으니 고요적절한 자리라든지 휘영청한 자리라든지 무슨 무상한 자리라든지 가고 오는 것이 없단지 열반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급함이나 해놔오니 종이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물을 봐라. 물을 봐도 그걸 누가 여다보지 말고 잠깐 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물의 공덕을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마조대사도 뜻이, 물의 공덕을 말하면 책이라도 한 권 될 거요. 농사도 짓고 사람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걸레도 빨고 그 공덕으로 말하자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조대사의 자리에서는 화와 북을 뛰어넘은 자립입니다. 공덕이니 뭘이냐 다 뛰어넘은 자립입니다.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에 가서는 시절을 만나서 그걸 굴릴지언정 그걸 뛰어넘은 자리거든요. 물을 봐라 해놔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범회 · 보림선원

### 위로 ‘보리’ 구하고 아래로 중생제도

#### 16-2 사홍서원(四弘誓願)

예술이라도 그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의 배경을 갖고, 또 현실을 조형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예술이지 그렇지 않다면, 부질없는 환각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닐까? 또 현실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현실 자체에서 유리되어 있다든지 정치철학의 이념을 상실하였다든지, 문화일반의 교양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나쁜 의미에서 직업화 되어 있고 부질없는 전문의식과 편 분야에서 담을 쌓고 서로 벽창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육안이나 법안이나 혜안이나 천안이나 그 때 경우에 따라서 이들을 자재로이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창조해 가지게 된 것은 불안이다.

그러므로 진정 자유자재하고 특 트인, 간이 트인 사람이라고 하는 지경이며 완성된 인격의 소유자로서 승고한 행동들 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로 보리를 구한다는 상구보리라는 것이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한편 이러한 지경에서 모든 사람을 접해 나가는 것을 하회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주체가 되려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못 사람을 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필경 우리의 눈이나 귀라 해도 되고 아무 것이라 해도 상관없다.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이런 것을 융통 무애하게 잘 가지면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며 바른 행동이 되고 이런 확신이야말로 알뜰한 것이고 이를 얻은 다음에는 위로 어떤 지위라도 구하여 판단 할 수 있고 아래로 어떠한 부류, 어떠한 사회 계층이라도 접수하고 교화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지경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여기 행원례(行願禮)의 마지막마로 회향계(回向偈)를 얘기할 차례가 되었다.

#### 17. 회향계(回向偈)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眾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회향(回向)에 대한 것은 앞에 나온 그 대목에서 많은 것을 얘기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계승만 설명한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우리가 육시

행원례(六時行願禮)에 의한 일상생활을 해 오면서, 이를테면 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으로부터 사홍서원(四弘誓願)에 이르기까지, 동경 지송(持誦)하는 이런 공덕으로서.

‘일체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여’ 우리가 아직 깨진 것은 아니지만 이 잠시 동안의 공덕을 우리의 팔과 행동으로 못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퍼뜨린다.

우리는 못 사람들과 더불어 안태한 극락의 나라로 가야한다. 우리와 못 사람들은 다 함께 마땅히 안태한 극락세계로 가서 삶을 영위한다. 아미타불을 함께 보아, 우리 다 부처님의 대도(大道)를 이룩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엔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지 그런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보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로 안다.

보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희열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희열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간단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열반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으로 육시행원예참문의 강을 일단 다 끝낸 셈이다.

좀 더 여러 가지 하고 싶었으나 못 다한 얘기도 있고 두서없는 말이 엉성하게 나열되었지만 그런데로 정삼업진언에서 시작하여 회향계(回向偈)의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에 이르기까지 모자라는 설명으로나마 가까스로 이끌어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강이 모자라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밑바닥에 흐르는 진의는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설사 완전한 해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무엇 할 것인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 한들 결국엔 내버려지고 마는 것이다. 이 언덕에서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다다른 다음에는 제 아무리 좋은 배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고 그냥 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 아무리 애착도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이 강을 듣는 동안에 제가끔 어떤 확신이 서고, 발심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한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아미타불을 우리와 못 사람들이 다 함께 봐주고 똑같이 대사회(大社會)의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러거나, 대자대비의 사랑을 깨치고 나서 무상대도(無上大道)를 증득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자가 되자.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의 대도를 성취하기 바란다. 대강 이런 뜻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엔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지 그런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보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로 안다.

보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희열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희열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간단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열반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으로 육시행원예참문의 강을 일단 다 끝낸 셈이다.

좀 더 여러 가지 하고 싶었으나 못 다한 얘기도 있고 두서없는 말이 엉성하게 나열되었지만 그런데로 정삼업진언에서 시작하여 회향계(回向偈)의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에 이르기까지 모자라는 설명으로나마 가까스로 이끌어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강이 모자라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밑바닥에 흐르는 진의는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설사 완전한 해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무엇 할 것인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 한들 결국엔 내버려지고 마는 것이다. 이 언덕에서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다다른 다음에는 제 아무리 좋은 배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고 그냥 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 아무리 애착도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이 강을 듣는 동안에 제가끔 어떤 확신이 서고, 발심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한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회 채정복) 전 3권(전 10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

육안 · 천안 · 혜안 · 법안 · 불안

융통 무애하게 잘 가지면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된다

위로는 어떤 지위라도

구하여 판단할 수 있고

아래로는 어떠한 부류,

어떠한 사회 계층이라도

접수하고 교화해 나갈 수 있다.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b>발로해(두한족열양말)</b> 노폐물 독소 속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b>자나까나</b>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b>샤사라다</b>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b>호락호락 팬티</b>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b>보디스킨</b>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어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